
쿠바의 변동 문화 이해를 위한 소고

파블로 로드리게스 루이스

아바나 인류학센터 연구원

원제와 출처: Pablo Rodríguez Ruiz, “Notas para una aproximación a la cultura del rebusque en Cuba”, en *Oxal*, No. 36, Diciembre de 2014, pp.81-100.

핵심어: 쿠바, 변동, 문화, 비공식 경제, 암시장

쿠바의 역사는 동시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로 채워졌고, 이런 변화의 격렬함은 쿠바 문화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었다.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실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수년간 쿠바공산당의 주도로 전개된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는 일면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확고한 경제적 토대의 구축이 없이는 혁명 과정에서¹⁾ 수행하는 그 어떤 사회적·인간적 사업도 중단 될 것이며, 결국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생산의 중요성을 배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문제는 결코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

1) 쿠바에서는 일상적으로 1959년 쿠바혁명 이후의 국가 정책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1959년 이후로 쿠바인은 ‘혁명 과정’에 있다고 말하며, 이 역사를 ‘혁명의 역사’라고 부른다 — 옮긴이.

에 경제적·사회적 조건의 재생산과 사회구성원이 열망하는 사회라는 문제가 덧 붙여진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를 최소화하고, 역사적·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와 인간 존엄을 극대화하며,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하고 꿈꿀 수 있는 공간이 항상 존재하는 사회이다.

경제적 측면을 부각하면 문화적 요인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변혁의 전(全) 과정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인간은 문화적 요인을 은폐하는 구조와 관계에 잠식되는 듯하다. 바꿔 말해서, 경제적·구조적 요소에 대한 강조는 제도와 구조 내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희석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때, 인간은 생산 요소이자 생산 메커니즘의 단순한 부속품으로 변질하며, 최악의 경우 필자가 ‘암나사 인간’(hombre tuerca)이라는 표현으로 개념화했던, 인간의 환원주의적 재현에 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변혁은 일어나며, 이는 역사적 경험과 전통, 즉 문화에 새겨진 경험의 결과인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인간이 학습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습하고 또 학습한 바를 전달하는 능력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다. 이 능력이 각각의 시대와 장소에서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유전적 요소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도록 만들지만, 이보다 중요하며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앞세대의 창조물을 전유하는 능력이다. 이는 단지 문화유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 문화유산을 새롭게 실현하고 창조하는 연속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는 축적되고 또 축적 가능한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다.

문화는 특정 사회의 습관과 관습의 총체가 아니다. 또 이런 습관이나 관습의 시각적 재창조로 환원되지 않으며, 책 속에 담긴 지식의 축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 문화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모순적이므로, 다양한 재현

메커니즘은²⁾ 대강의 그려놓은 스케치에 불과하다. 문화는 인간 존재와 발전의 본질에 자리 잡고 있다. 문화는 모든 맥락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에워싸고 있으므로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고 의미 있게 만들며, 또 행위 속에서 재창조된다. 또 문화는 사회의 상징적·물질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역사적으로 구별되고 인지되는 단일한 맥락을 형성한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관계와 실천에 깊숙이 각인된다. 미개한(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인간이란 엄밀히 말해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인간이 없는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적 림보(limbo)는 식물 상태의 유기체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문화를 이렇게 정의하면, 인간에 대한 파편적 관념(수직적인 사회질서와 과학적 사고 전통에서 형성되었다)을 타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이라는 본질주의적이고 고정된 관념(어떤 의미로는 사회변동을 저해하는 관념)에 더는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인간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동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 한마디로, 복잡하고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를 실천적(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행위의 결과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즉, 본성이 아니라 특정 환경 속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그물망처럼 짜인 여러 문화 형태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여건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결정하고, 인간을 만든다.

우리는 문화와 역사적으로 창출된 의미화 체계를 따르는 구체적이고 행동하는 개인이 되고, 이 체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조직하고, 지탱하며, 방향을 찾는다. 의미화된 대상과 의미, 상징, 재현으로 구성된 이 세계는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³⁾ 권장하고, 여기에 중요성과 방향성을 부여한다. 이는 일종의 프로그

2) 재현 메커니즘이란 문화산업, 대중매체, 특정 헤게모니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지적생산 체계가 어우러진 복합체를 의미한다.

3) 이 문장에서 행위(acto)는 개인이 홀로 행하는 것이며, 행동(conducta)은 타인에게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

램이 되며, 우리는 이에 따라 행동을 해석하고 조직한다. 그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문화적으로 예측하는 작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문화와 실천적 활동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본질주의로부터 거리가 먼, 생동감 있고 복합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보편적·시대적·국가적·지역적 심지어 가족적 가치가 어떻게 상호 관련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문화적인 표현과 여기에 수반되는 사고방식이 어떠한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실현되고, 변형되며, 재창출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문화가 실천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이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다차원적인 실현 과정에서 전통과 헤게모니적인 가치가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며, 때로는 상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의 은폐되고 하찮게 여겨지거나 소수 집단에 속하던 문화 형태가 실현되고, 계급과 지역의 집단적 장벽을 넘어서고, 혼종화되고, 확산되고 심지어는 보편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1990년대 쿠바의 위기 상황에서 변통(rebusque)⁴⁾ 문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정황을 이해하는 데 앞에서 언급한 문화 관점은 의미가 있다.

다 — 옮긴이.

4) 이어지는 설명에서 보듯이 rebusque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쿠바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은어의 의미를 살리고자 변통(變通)으로 옮겼으나 만족스러운 역어는 아니다 — 옮긴이.

변통 문화?

‘rebusque’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매우 신중하고도 열성적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수색하거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밭에서 수확이 끝나고 남은 것을 줍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우루과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행위와 그 결과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난관을 헤쳐가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거나 재치 있게 해법을 찾는다는 의미이다. 이런 맥락에서, 매우 영세한 상업 행위, 비정기적인 노동, 생존에 필요한 수입을 얻으려는 부업 등을 일컫는 데 사용한다. 일반적으로는 비공식활동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데, 이 현상이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 변통 문화라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비공식성이 어떤 특징을 띄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rebusque’라는 개념은 유년기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형성된 부적절하고 병리적인 감정 상태의 행위를 의미하며, 허용되지 않거나 금지된 순수한 감정을 대신해 표출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허용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간주되는 감정적 반응을 감추고자 하는 조작적인 특징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개인의 느낌과 그 표현 사이에는 아주 큰 괴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감정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을 때 ‘rebusque’라는 대체 감정을 통해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생감정(parasite’s feel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상에서 말한 의미의 핵심은, 상호 작용하는 여러 기본 요소, 즉 변통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가난이나 자원 결핍과 같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행위와의 연관성이다. 또 다른 요소는 이 개념이 수반하는 행위와 실천의 절박함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요소는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함축성이다. 많은 경우 이 상황은 지배적 규범에 의해 좌우되며, 위장과 현실도피를 유발한다.

이런 행위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인구의 최빈곤층에서는 오래전부터 광범위한 곳에서 행해졌다. 19세기 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설에도 이런 행위의 사례가 여러 차례 묘사되어 있다. 성과와 같은 옛 문헌에도 유사한 행위를 묘사한 부분이 있다.⁵⁾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변통 문화에 어느 정도의 역사적 깊이와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행동하고 느끼는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으로 해석할 여지를 갖게 된다. 위계 질서와 계급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생산 수단, 재화, 권력, 지식에의 접근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어 왔던 집단이 생존을 위해 실천을 감행하는 기나긴 역사적 과정에서 이런 행위는 구조화되었다. 그러한 실천이 행동, 행위, 관계, 처신의 유형, 특정 주체로 표출되고, 또 특정 집단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문화적 표지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중속된 집단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난과 소외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변통이라는 문화 형태가 존재하며 가시화된다. 이는 삶의 조건을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결핍과 불안정이 야기하는 긴장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절박함의 결과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회에서 이런 문화형태는 거의 보이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영역에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형태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제도화하고 있는 사회는 변통 현상의 표출을 감추고 낙인을 찍으려는 경향이 있다. 엘리트와 지배집단은 이런

5) 레위기 19:9, 신명기 24:20 참고 — 옮김이.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려고 들지만, 피지배집단이 중속과 위법성이라는 상황에서 행동함에 따라 상기의 수많은 실천은 자본주의적 관계와 경쟁관계가 만들어내는 행동 유형(어느 면에서는 정교한 이념적·법적 장치를 통해 은폐되고 정당화된다)을 재생산하게 된다. 경쟁자는 타자이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저 없이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과도 무관하지 않고, 변동과도 무관하지 않다.

비공식성과 변동의 결과가 모두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렇다. 아르헨티나에서 쓰레기를 뒤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협동적으로 일했다. 이런 노동은 그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으며, 지방에 기반을 둔 독자적 경제, 즉 인간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폐기물 산업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실천은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창조적이고 의미 있게 물질적·인간적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이는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변동이라는 개념은 부수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개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 임시 노동, 심지어는 자살한 사기 행각이나 횡령 등 매우 광범위한 일련의 실천을 일컫는다. 이런 실천이 상호 관련을 맺고 표출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법체제에서의 입장이 결정된다. 합법적·불법적 형태와 표현, 더 나아가 주류 사회경제 체제의 관행에 따른 규범, 적합성, 의무에 반하는 현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현상 가운데 다수는 임시적인 생존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현상이 안정적이고 규범화된 방식으로 특정 집단의 행동 양식에 각인됨에 따라 문화적 특징을 띠게 되며, 이는 변동 문화로 나타난다.

변동 행위를 살펴보면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일련의 전술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술은 맥락, 상황, 순간에 따라 생겨나며, 즉각적인

결과에 따라 수정된다. 나중은 전혀, 또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전술은 구체적 활동 영역과 실제 행위에 근거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개별 시간과 장소가 허용하는 상황적 이점을 확보하려 한다. 이는 점진적인 성장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조적이고 안정적이기보다는 분산되고 유연하며 불안정한 유형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 전술은 근본적으로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누적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현실의 특정한 시간적·공간적·인식적 상황이 변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 사례로 쿠바인이 사용하는 3페소짜리 쿠바페소(CUP)를 외국인이 사용하는 태환페소(CUC)의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들 수 있다. 3페소짜리 화폐의 크기와 색이 1페소짜리 태환페소와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이 관행이 비롯되었다. 두 통화가 구조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일상에서는 혼용하고, 또 거래 조건, 거래하는 사람의 유형, 거래가 실현되는 환경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명목상으로는 3쿠바페소가 더 가치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1페소짜리 태환페소가 3쿠바페소에 비해 8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 관료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고, 일상에서 사람들은 두 화폐를 흔히 접하게 된다. 두 화폐의 가치 차이는 상당한 이익 창출의 근거가 되며, 이는 두 화폐를 넘나드는 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동시에 사취 행각을 유발하는 물물(物物) 관계는,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제영역 간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장소는 또 다른 결정 요소이다. 소매 시장이 이에 해당한다. 판매자는 매대 옆에서 온종일 아니면 적어도 여덟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시장이라는 공간을 공유한다. 우연히 모이게 된 사람은 어떤 공간도 차지하지 못한 채 매대 옆을 서성인다. 장소를 차지한 사람들과 어떤 자리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는 상황이다. 판매자는 능숙하게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며 주변을 지나는 인

파를 매일 접한다. 특정 시장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와 구매자의 소비 욕구는 상인에게 호기로 작용한다. 공간적 특성과 판매품의 종류 역시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많은 야시장과 식당가에 드리운 어두침침함에 더하여 무분별한 소비 행태와 취기는 상인이 이득을 보기에 적합한 조건이다.

외국인과 여행객이 한 군데 뒤섞여 있다는 것 역시 절호의 기회이다. 외국인은 쿠바 통화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존재이며, 게다가 통화체제 간 균열은 외국인의 경험이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체 게바라의 모습이 그려진 특이한 화폐를 거스름돈으로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우연히’ 손에 넣게 된 일종의 기념품 역할까지 하게 된다. 이는 상이한 두 문화의 체험이자 상이한 두 의미 체계의 조우이기도 하다.

수법은 아주 단순하다. 태환페소를 받고 잔돈으로 3페소짜리 쿠바페소를 몰래 끼워주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이 눈치 채면 실수했다고 얼버무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다. 이렇게 서너 번만 거래해도 하루에 66페소에서 88쿠바페소의 추가 이득이 발생한다. 설령 이보다 효과적인 수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수법은 매상이 형편없는 날 큰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지하경제, 도시 비공식 부분, 변동의 공간

변동이라는 개념은 비공식성이나 지하경제(‘미등록 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와 상관성이 있는 듯하다. 이런 점에서 사회과학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쿠바에서 진행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 주제의 특정 측면에 매우 세밀하게 집중해 왔다. 일반적으로 이런 연구는 비공식성을 진단하거나, 암시장이나 지하경제라는 관념을 중심으로 접근해

왔다. 이 현상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사실상 부재하다. 지하경제에 대한 알프레도 곤살레스의 정의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 성격이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경제 공간을 의미한다. 쿠바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하경제가 국가를 침범하게 됐으며, 보완적인 상업 활동이 수반되지 못한 채 화폐가 발행됨에 따라 심화되었다. [...] 이 경제 공간은 수요공급 법칙이 작동하고, 화폐가 유통되는 시장을 형성한다. 시장경제에서와 달리 쿠바에서 시장가격은 정부의 공식가격보다 더 높다. 이는 소외 계층의 소득 창출 전략이라고 보다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생겨난 시장이라고 보아야 한다.⁶⁾

위의 인용문의 정의에 따르면 지하경제는 다음 두 요인으로 발생한다.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이고, 두 번째는 과도한 유동성과 이로 인한 수요의 변동이다.

위기의 1990년대에 지하경제(비공식 경제, 암시장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가 성장하게 된 데는 이런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정의는 일련의 논리적 한계가 있으며,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 현상을 유통의 측면,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허가받지 못한 시장(또는 교환)으로 한정하고 있다.

6) Alfred González, “La economía sumergida en Cuba”, en *Cuba. Investigación Económica*, No. 2, ISIE, La Habana, 1995.

2. 이 유형의 활동이 법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하고 모순적인 설명으로 이어진다. 허가받지 못했지만 합법적인 활동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은 사실상 허가 받은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합법적인 것은 숨을 이유가 없다. 앞의 정의는 허가라는 문제로 한정된다.

3. 위 정의의 본질적인 특징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화폐가 유통되는 시장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 및 화폐 유통은 어떤 시장에서도 배제할 수 없는 측면으로, 특정 상황이 만들어내는 제약조건과는 무관하다. 이 점에서 결국 동어반복이 되고 만다. 화폐 유통은 쿠바 사회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수요와 공급이 지하경제에서 재화와 용역의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불법성, 재화와 용역이 이동하는 시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원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공간에서 이동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부분은 국가경제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적어도 국가 영역이 재화와 용역의 원천이고 또 거래의 무대라고 한다면 지하경제보다는 마찰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⁷⁾

4. 상품가격이 국가경제보다 지하경제에서 더 비싸다는 사실로 쿠바 지하경제의 특수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수많은 희소재와 복잡한 상업망으로 인해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이지는 않다. 수많은 재화는 상업망에서 제시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며, 판매점 가격은 대체로 하락한다. 상품의 수량, 입고 방식, 소요 시간, 조직 수준, 상업망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좌우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품을 내놓기 전에 눈치

7) 마찰(raspado)라는 단어는 마찰하다(raspar)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로는 '꺾다', '문지르다', '할퀴다', '찢다', '갈기갈기 찢다', '후비다' 등이 있다. 그러므로 마찰경제라는 말은 경제가 약화되는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변통은 이런 경제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문화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

를 살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하경제는 국가경제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5. 인용문에서는 이 문제의 사회적 측면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매우 피상적인 수준이다. 높은 상품가격이 소득 창출을 위한 소외 계층의 전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전제에서 그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논리는 사회적 행위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행위자 일반에 대한 관념이며, 그 어떤 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려도 없다. 상품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상호교환망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결과로 이익이 분배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손익관계가 이 현상의 핵심이자 결정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위 정의에서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이런 손익 관계를 지엽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대신 가격이라는 범주에 분석을 한정하는 것은 문제의 외적 현상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위 정의에서 보듯이 현상을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수요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정의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상황의 결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전 역사에서 어떻게 지속했는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근본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점은 비공식 경제나 도시 비공식 부문에 대한 상당수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공식 부문이라는⁸⁾ 용어는 자본주의 주변부를 특징짓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

8) 이 개념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비공식 부문의 특징은 국제노동기구가 최초로 제시했던 7가지에서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CEPAL)가 제시한 18가지로, 그리고 로티에(Bruno Lautier)가 제시한 21가지로 늘어났다.

해 생겨났다. 자본주의적 관계의 이식과 전개에 특수성에 따라 이러한 경제 유형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며, 이 가운데 다수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가 제시한 저개발이라는 개념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비공식 부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매우 상이하다.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처하고 피해가기 위해 기업이 정신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자에게 이 개념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가의 고용 실태에 미치는 피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메커니즘이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이 개념은 노동자 착취를 통해 높은 이윤을 확보하려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존재하는 소외층 또는 산업예비군과 관련성이 있다. 최초로 이 개념을 만들어낸 국제노동기구의 관점은, 제한적이고 분열된 노동시장에 노동력이 진입하는 조건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비공식 부문이라는 개념은 ① 경제적·개인적·기업적 단위의 총체, ② 경제활동 인구의 한 부문, ③ 사회경제적 계층, 이 세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이론적 입장은 각자 상이한 가설과 접근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첫 번째 입장은 기업의 규모, 자본, 기술유형, 생산 수준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입장은 노동시장 및 저자본과 미숙련자의 구직 용이성에 주안점을 둔다. 사회계층으로서 비공식 부문은 주로 도시의 가장 빈곤한 부문을 가리킨다.

비공식 부문이라는 개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부터 모호함이 생겨난다. 예컨대, 노점상, 가사도우미, 가내수선공, 경비원, 영세사업자와 그 직원과 같은 포괄적인 영역의 활동을 모두 이 범주 안에 포함하는 것이다.

식민통치를 경험한 일부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은 전(前)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산발적으로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일부 문헌에서는 전통 부문, 전통적인 공동체 등으로 언급하

고 있다. 이런 지역 거주민이 도시로 이주할 때는 고유한 생활습관, 생산양식, 관습 등을 버리지 않은 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이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런 이주민은 일반적으로 문맹률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도 구사할 수 없으므로 근대경제에 통합될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게다가 근대 경제의 조직화된 노동 환경에서 생산에 참여해본 경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빈약한 산업발전으로 생겨난 실업자와 반실업자 대열에 합류하여 사회경제적 구도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비공식 부분이라는 개념은 근대적 부문과 대치되는 것으로 제시되며, 이를 통해 현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비공식 부분을 두 종류의 생산 체제가⁹⁾ 공존하는 데서 발생하는 결과로 기술하고 있다.¹⁰⁾ 이렇게 일종의 이원론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런 국가의 역동성을 간과하고 있다.

쿠바 관련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공식 부분을 자영업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은 소상공업의 규모, 고용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소상공업 역시 세금을 납부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한다. 1990년대의 위기 상황에서도 합법적인 틀 내에서 성장해왔다. 이 경우 비공식성은, 지금까지 발전해온 조건을 고려해볼 때, 내부에서 재생산되는 특정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 그렇지만 도시 비공식 부분이라는 개념을 정교하게 만들었던 다인종 사회라든가 문화적·사회경제적인 격차와 같은 특징은 쿠바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9) 주지하듯이, 하나는 근대 산업과 다국적기업의 계열사의 고유한 노동 방식인 테일러·포드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 경제에 뿌리박고 있는 단순 협동 노동이다.

10) 하비에르 콘트레라스 카르발랄의 다음 문장은 이런 접근 방식을 잘 드러낸다. “생산체제란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등장했던 단순 협동, 수공업, 거대 산업, 테일러·포드주의와 같이 상이한 노동 과정에 대한 규범의 총체로 볼 수 있다.”(Javier Contreras Carbajal, “Enfoque crítico sobre las teorías del sector informal urbano en América Latina”, Tesis de maestría, Facultad de Economía de la UNAM, 1997.)

쿠바 문화는 강력한 문화횡단(transculturación)의 결과이며,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극히 대조적인 인구 부문, 즉 원주민은 생존할 수가 없었다. 원주민 집단은 인구도 적었고, 또 매우 이른 시기에 사실상 전멸했다. 쿠바 동부의 소규모 공동체는 외모나 문화가 상이했지만, 이들을 제외한다면 원주민 집단은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아무런 비중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원주민의 문화와 생산기술은 ‘쿠바적인 것’(lo cubano)에 뿌리내리고 있다. 한편, 정복과 식민화 초기의 특수한 토지 점유 방식과 유럽 이주민의 정착(페르난도 오르티스가 말했듯이, 강력하게 또 강제적으로 진행되었다)은 쿠바의 사회적·경제적 열개를 형성하였고, 이로써 쿠바는 다른 라틴아메리카와 차이가 나게 되었다. 토지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유럽 이주민의 수중에 있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산체제가 들어섰다. 아프리카계는 단순히 일하는 짐승으로서 쿠바 경제에 통합되었으며, 당면한 생산 조건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다.

도시 비공식 부문에 대한 여러 정의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원론은 연구 대상인 맥락을 단편적인 시각으로 조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성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 다시 말해 공식적이지 않은 것, 등록되지 않은 것,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정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고 미등록적인 성격은 비공식 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측면이다. 이는 비공식 부문에서 재생산되는 사회관계의 유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생산 단위와 유통망에서 형성된 생산관계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비공식 부문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불법성의 조건이 재생산되는 비공식 부문에서 생산관계의 특징은, 구두로 약속하고, 긴장감 속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하는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 직원의 채용과 해고는 구두로 이루어지고, 합의 사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고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주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무자비하게 착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얘기한 두 개념은, 일반적으로 계량과 측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경제적·사회적 공간을 묘사하려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변통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했을 때 구조화되는 실천과 관계를 가리키는데, 이는 문제를 계량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실천은 비공식성과 주변부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쿠바 사례에서 비공식 부분과 관련된 문제나 특징을 확인할 수 없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비공식부분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생각해 보면, 쿠바의 미등록 경제에 대한 연구를 계획할 때 이 개념을 기본적인 분석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쿠바의 변통, 맥락적인 결정 요인

문화현상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형성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실천의 특정한 시간적·공간적 무대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일반적으로 빈곤 지역에서 변통 문화가 형성되는 영역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성은 지역적·국가적 맥락에 좌우된다.

맥락에는 역사, 전통, 상황,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문화적 표현의 특성이 재생산된다. 그러므로 쿠바의 변통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려면 역사적 성격과 아울러 구조적인 성격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쿠바라는 맥락에서 비공식성과 변통이라는 실천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쿠바적인 것’은 위반과 비공식성의 결과이다. 쿠바 독립의

불씨를 당겼던 바야모 지역의 발전은 이 지역민이 ‘구조’(rescate)라고 부르던 밑매때 덕분이었다.

역사적으로 쿠바는 남쪽 국가들의 기형적인 구조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 설탕만 생산하는 단일재배(monocultura) 구조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미국 의존성을 키웠고, 이 산업의 주기적 속성에 적응해야만 하는 노동자 집단을 배출했다. 사탕수수 수확기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지만, 수확이 끝나고 다음 수확기가 도래할 때까지 생존을 위한 여정이 시작된다. 도심에는 상이한 직종에 종사하는 대규모 비공식 부문 노동자와 구직자가 존재한다. 또 한편으로 라티퓌디오는 수많은 무토지 농민을 진정한 천민계급으로 몰아넣었다. 이들에게 생존이란 당위이자 실천이었고, 이 사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에 각인되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들은 일상적인 변통 행위자가 되었다.

이것이 1959년 1월 쿠바혁명이 성공했을 때의 전반적인 사회적·경제적 상황이었다. 쿠바는 구조적으로만 영망이었던 것은 아니다. 바티스타 정권의 고위층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을 훔쳐서 가방에 담아 미국으로 빼돌렸다. 혁명은 첫 순간부터 재정적·물질적 자원 부족에 시달렸다. 혁명의 역사 전반에 걸쳐 무역적자는 쿠바의 구매력과 재정불안을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다.

변형되고 왜곡된 국가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혁명 지도부가 취한 초기의 민족주의적 조치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했고, 향후 미국의 대쿠바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정책 가운데 하나가 경제봉쇄(미국인이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embargo’)였다. 아직도 낡은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는 쿠바의 독특한 풍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기술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쿠바는 경제봉쇄 정책 때문에 자동차 부품 하나도 들여올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쿠바는 돈도 없었고, 기초적인 거래선도 끊겼고, 기술력도 확보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구식이 되어버렸고,

이를 혁신하는 것이 혁명 사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집중적인 사고방식이 생겨났으며, 이는 실천, 행동 양식, 기관의 조직에 그대로 나타났다. 사회발전 방향은 인민의 수중에 있었지만, 높은 문맹률, 낮은 교육수준과 기술 수준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고착화했다. 소련의 지원에 힘입은 쿠바의 '현실 사회주의'는 여기에 제도적 성격을 부여했다. 국가 경제의 조직, 관리, 운영에 잔존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분명한 증거이다.

다음 단계의 특징은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국유화이다. 이 과정은 1968년 소위 '혁명적 공세'에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소규모 사업, 과일가게, 심지어는 구두닦이가게까지 몰수하여 국유화하고 국가가 운영하면서 기존의 비공식 부분은 모두 정리되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수면 아래로 숨어서 은밀하게 지속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경범죄이다. 1970년대 횡령, 사기, 반(反)국가경제 행위 등의 범죄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13% 증가했고, 아바나에서는 37%나 증가했다.¹¹⁾

가장 많이 횡령한 물품은 식품, 현금, 철물, 가전제품, 건축자재, 옷감, 연료, 주류였다. 이런 물품은 항상 제한적으로만 공급되던 직접 소비재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색시장(grey market)이 등장하리라는 예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1980년대 초에 시장의 특정 부문에 대한 통제를 해제하자 회색시장은 눈에 떨 정도로 활기를 띠었다. 이 모든 사실에 비춰볼 때, 지하경제가 현재의 전환기 상황 때문이라는 논리는 스스로 무너진다. 대한 반박이 된다. 동시에 쿠바의 비공식 부분의 특징, 즉 비공식 부분은 물품 공급의 원천인 국영경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1) 횡령, 사기, 반국가경제 행위 등의 범죄에 관한 자료는 다음 글 참고. Dirección de Información del MININT, "Tesis sobre los delitos de malversación, fraude y contra la economía nacional popular, Doc. 240-e", MININT, La Habana, 19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만이 비공식 부문에 관여했고, 또 처벌을 통해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당시의 복지 수준, 생필품 보급 만족도, 사회적 유동성으로 인해 이러한 활동은 주민 대다수가 거부하는 주변부적 현상이 되었다. 따라서 쿠바인의 생활 방식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쿠바를 새로운 위기로 몰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쿠바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와 산업기술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사건이 무엇인지는 이미 잘 알고 있다.¹²⁾ 아무튼, 이 사건의 결과 쿠바는 다시 한 번 돈도 없고, 무역도 안 되고, 기술은 정체되었다(사실상 낙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토리첼리법과 헬름스버튼법을 통과시켜 경제봉쇄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고, 이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쿠바를 확인 사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 이후에 형성된 맥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는 물질적 영역뿐만 아니라 관념과 사회사상에서도 충격을 주었다.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위기였다. 이런 상황은 사회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 급격한 경제 붕괴. 4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약 34% 감소했다.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다수의 산업이 마비되었다. 에너지부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산 활동에 걸림돌이 되었고, 정전은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마르케티 노다르세에 의하면, 1993년 쿠바의 산업체 가동률은 13%에도 미치지 못했다.¹³⁾ 이와 더불어 실업률이 증가했고, 노동력은 남아돌았다.

12)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에서 1991년 소련(소비에트연방) 해체에 이르기까지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가리킨다 — 옮긴이.

13) Hiram Marquetti Nodarse, “Cuba: El desempeño del sector industrial en 1996”, en *La economía cubana en 1996. Resultados, problemas y perspectivas*, CECC; Fundación Friedrich Ebert, La Habana, 1997, p.50.

- 기존 기술력으로 한층 경쟁적인 시장과 새로운 교역 조건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었다.

- 보호 조치 없이는 아무도 거리로 내몰지 않던 시기에 입안된 정책 때문에 시중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 생산이 마비되고, 무역이 중단되거나 최소한으로 축소되면서(그때까지 80%가 넘는 대외의존도를 보인 쿠바 경제였기에 에너지, 생산수단, 일차산품뿐만 아니라 중요한 소비재까지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공급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감소했다. 공급부족이 낳은 위기였다. 식료품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인 위생용품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이 품귀였다. 사회 전 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 자유 시장에서 생필품 가격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싸구려 콩이나 해바라기씨로 만든 식용유 1파운드가 암시장에서 150페소에 거래되었다. 이는 쿠바 경제활동인구의 50%가 받는 평균 월급에 해당했다. 바꿔 말해서, 1파운드의 식용유가 한 달 치 월급에 육박하기도 했다. 실질임금이 극도로 감소했다. 이 모든 상황은 노동력의 가치를 하락시켰고, 이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

- 재정 부족은 일종의 외채로 충당했다. 카란사에 의하면, 이러한 외채가 국내총생산의 58% 이상을 차지한다.¹⁴⁾

- 이 모든 상황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악순환을 낳았다. 좌절감과 불투명한 미래가 사회 주요 부문에 만연했다.

이렇게 험겨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사회 전 영역에서 등장했다. 사회적 연결망이 작동되었고, 자원이 동원되었다. 1980년대에는 향수에 젖

14) Julio Carranza, "Las finanzas externas y los límites del crecimiento", en *La economía cubana en 1996. Resultados, problemas y perspectivas*, CECC, Fundación Friedrich Ebert, La Habana, 1997, p.35.

은 노년층의 피난처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던 민족 집단(스페인계, 중국계, 아랍계, 유대계 등)이 활동을 개시했고, 번창하였으며, 외국에서 자원을 동원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역을 통해 전성기를 누렸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공산품을 보냈고, 농촌에서는 가족단위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에 식료품과 농산품을 공급했다. 생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사회적·문화적·물질적 자본이 활용되었다.

전략은 매우 다양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합법적이었고, 일부는 불법적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전략은 기존 가치체계를 변화시켰다. 예전과 다르게, 가정 내 소비를 줄이고, 어린이와 어른을 우선 배려하며, 안 쓰는 물건을 재활용하거나 판매하였다. 심지어 자원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소득을 얻으려는 실천이 사회 전체로 확산했다. ‘투쟁’(lucha)이나 ‘투쟁하다’(luchar)라는 말에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¹⁵⁾ 다른 맥락과 시기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법한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심지어는 칭찬했다.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몸이든 집이든 가리지 않고 수중에 있는 것을 활용하거나 남을 것을 유용하였다.

변통과 비공식성이라는 형태는 사회적 삶의 영역과 경제 분야에서 전체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삼차산업, 그중에서도 상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암시장은 은밀한 소비자과 판매자, 즉 모든 사람이 만나는 보편적인 지점이 되었다.

이런 형태가 사회 전체로 확산한 것이 분명했다. 1970년대의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 사범이 국가경제에 초래한 피해액은 약 5백만 페소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알프레도 곤살레스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지하경제로 유입된 자본은 국내총생산의 35%를 넘는다.¹⁶⁾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동원된 자원과 축적된 자본은 수십억 페소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새로운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15) 쿠바의 일상에서 이 말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가윗벌이’를 뜻한다 — 율킨이.

16) Alfredo González, “La economía sumergida en Cuba”, en *Cuba. Investigación Económica*, No. 2, 1995.

합법화되고 세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며, 모든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국영무역도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5,800톤의 옷감과 구제 의류가 수입되었고, 이 명목으로 매년 평균 910만 달러를¹⁷⁾ 지출했다.¹⁸⁾ 이렇게 수입된 의류는 중고옷가게(trapishoping)에 공급되었다. 대다수 쿠바인은 이런 가게에서 필요한 의류를 구매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고, 구입한 의류 가운데 일부는 농촌 사람들과 물물교환으로 부족한 식품을 충당할 수 있었다. 옷을 고른 다음 이를 물물교환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두 번의 변통은 수많은 쿠바인에게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쿠바의 대응 조치는 효과가 미미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동력을 얻지는 못했다. 위기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했다. 그 폐해는 국내총생산이 급격히 하락한 지 24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은 쿠바인 평균 수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적어도 실질 임금, 정확히 말해서 생필품과 노동력의 교환 조건은 여전히 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아직도 돼지고기 1킬로그램을 구입하려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50.9시간, 즉 1주일 이상을 일해야 한다. 사물의 세계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대해짐에 따라 사회(특히 사회주의를 열망하는 사회)의 구성 원리로서 인간과 노동의 세계가 상대적으로 왜소해졌다. 이렇게 경제활동 수준 및 노동의 교환 가치 급락(실제로 사회적 충격이었다)과 생의 3분의 1가량에 걸친 위기 상황이 지속하자 수많은 생존 전략은 문화적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상당수 쿠바인의 존재 방식이자 행동 방식의 일부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 어떤 위기대응 방식도

17) 이 수치로 계산하면 1킬로그램 당 가격은 약 1.5달러인데, 옷 한 벌을 판매하면 회수할 수 있는 돈이다. 이처럼 옷 한 벌만 팔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18) ONE(Oficina Nacional de Estadísticas), *Anuario estadístico de Cuba 2002*, ONE, La Habana, 2003, p.152.

이러한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변통을 문화적으로 제도화된 실천으로 생각해야만 사회 현실을 한층 역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바꿔 말해서, 변통의 표현 형태를 연구하고, 범죄나 부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변통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변통의 공간, 행위자, 구조

이른바 ‘특별시기’에¹⁹⁾ 나타난 현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통의 확산이다. 삶의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난 현상으로, 쿠바인은 행위 주체로서 또는 대상이자 희생자로서 변통에 관여했다. 변통의 표현 형태와 전술은 매우 다양한데, 이는 변통이 구조화되는 공간, 활동 유형, 법과 범죄에 대한 입장, 공급처, 네트워크 성격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생겨나며, 이를 기술하려고 시도할 때는 도식화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기본 활동 유형을 고려하여 분류한다면, 기업·생산 유형, 노동 유형, 상업 유형, 횡령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생산 유형의 변통에는 폐가전제품이나 그 부품을 재활용하는 사람, 수선공, 일회용 라이터를 충전하는 사람, 공장에서 담배, 음료수, 기타 물건을 불법적으로 제조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노동 유형은 공식 부문에서 일과를 마치고 부업으로 여러 직종(정원사, 소소한 주택 수리업자, 날

19) 쿠바 정부의 공식적인 명명은 ‘평화시대의 특별시기’(período especial en tiempos de paz)이다. 우리말 어법으로 보거나 의미로 보면 ‘비상시기’, ‘고난시기’가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특별시기’는 현실사회주의 붕괴 앞에서도 의연하게 사회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가 담긴 표현이므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옮긴이.

폼팔이)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도우미, 불법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상업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특별시기에 팽창한 암시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횡령 유형은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소득을 얻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실천을 모두 아우른다. 이 유형은 자잘한 부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짜 포도주를 만드는 고전적인 실천으로부터 관리가 지위를 남용하여 뒷돈을 받는 일까지 포함된다.

민간 부문에서 전개되는 활동은 공공 부문이나 국가경제, 그리고 그 상호 관계적 영역으로 이어지며, 이 활동은 공급의 출처와 그 시초가 되는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다. 이 활동에 구조화된 연결망과 여기에서 생겨나는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이한 표현 형태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범죄와의 관계는 복잡하고도 다양하다. 동일한 문제라도 할지라도 사법적·경제적·사회학적·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각각의 관점에서 조망해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렴점, 즉 접점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저러한 측면이 상호 무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상이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범죄는 특정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사회가 구성원의 삶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규정하고 부과하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범죄의 정의는, 자유주의 사상이 만들어낸 합법성의 형식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²⁰⁾ 즉, 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갖가지 형태의 위법 행위가 포함된다. 한편, 변통은 수많은 실천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실천은 범법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상당수는 법적·윤리적 위반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완벽하게 합법

20) 쿠바 형법 제1조 8항 1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적으로 위협하여 법이 금한 모든 작위(作爲)와 부작위로 정의되며, 형사법상의 제재를 받는다.

적이다. 특정 표현 형태는 범죄를 조장하기도 하며, 간접적으로 연루되기도 한다. 행정상의 부패 행위도 이와 유사하지만 변통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소소한 부패 행위이다.

앞서 언급한 관계는 각각의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문제가 되며, 특정한 방법론적 질서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열거하는 항목은 연구 대상의 윤곽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앞서 언급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이다.

첫 번째는 관계의 요소들이 위치하는 맥락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두 현상(변통과 범죄)이 재생산되고,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게 되는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변통과 가장 밀접한 위법 행위의 동력에 관한 것으로, 그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는 암시장 또는 회색시장이다. 이는 다음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위법행위의 힘과 동력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두 번째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로,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상이한 위법 행위는 변통과 관련을 맺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통의 불법적이거나 위반적인 성격은 실행, 조직, 관계에 고유한 특징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의 외부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변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불법적이라는 사실로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의미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거래하는 재화와 용역 그리고 거래 행위 자체가 범망을 벗어나 이루어진다. 행위자들이 생산과 거래 과정에 참여하는 특별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불법성이다.

2. 경찰의 추적과 재화 물수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3. 행위자들은 상업 관계에서 그 어떤 법적 보장도 요구할 수 없다. 계약 이행

을 요구할 수도 없고, 상대방을 신뢰할 수도 없으며, 재산을 보호할 수도 없다.

불법 경제활동의 방식은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생산품, 생산의 조건에 따라서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럴 경우, 1차산품의 획득과 보관, 인력 모집과 교육, 생산품의 유통과 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만 불법성은 이런 유형의 활동을 다른 활동과 구별해주는 표지이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착수할 때는 여러 가지 특수한 딜레마를 고려해야만 한다.

시장에서 행위자는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한다. 한편으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하는 일을 숨겨야 한다. 정보가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막아야 국가 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이든 장사든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장사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사업처럼 특정 정보를 유포해야 한다.

비밀사회는 정보가 누설되면 탄압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며, 구성원이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한다. ①비밀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②이러한 서약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맹세를 받거나 협박하고, ③모든 정보는 구두로 전달하고, ④서약 위반자를 비난하고 응징하고, ⑤정보를 분산시켜 위험을 줄이고, ⑥상하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관계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대면을 제한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지 못하도록 만든다.

불법 사업은 예상되는 위험에 따라 활동 상황을 감추려고 한다. 이는 다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생산과정을 여러 단계로 분리하고, ②생산량과 재고량의 규모를 줄이고, ③예상치 못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소를 옮기고, ④선입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한다.

불법적인 성격은 조직과 사회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 방식은 ①경찰과 정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담당 업무와 정보를 분산시키는 조직 형태를 취한다.

②일 처리 과정은 위계조직보다 점조직 형태를 띤다. ③개인적인 접촉을 최소화한다. ④인적 정보와 거래 내역은 조직 내부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분산시켜 관리한다. ⑤점조직원에게는 상급자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 소수 인원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 ⑥조직원은 비밀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며, 이를 어기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응징한다. ⑦거래 내부 구조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⑧상이한 거래 업종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며, 대부분은 산발적이다. ⑨노동관계는 느슨하지만 시간을 엄수한다. 또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조직되며, 고도로 개인적이다.

이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볼리타(bolita)²¹⁾ 조직이다. 금고 정보는 한두 명의 수금책에게만 알려준다. 수금책은 소수의 모집책과 접촉한다. 이 모집책 밑에 또 다른 모집책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조직원의 관계와 기능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금고를 보호한다. 다른 사례로는 불법 시가의 생산과 판매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생산, 공급, 판매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조직망은 매우 광범위하고, 점조직 형태이다. 한쪽에는 불법 생산자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양질의 시가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장인이다. 그렇지만 시장의 요구에 맞추려면 재료와 포장지와 상표가 필요하다. 이런 물품의 공급망은 민간경제(수확물을 파는 농민)뿐만 아니라 국영경제(인쇄소에서 제작하는 상표와 띠, 시가 상자, 때로는 가공되지 않은 담뱃잎)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공급원은 매우 유연한 조직망을 만들어내며, 발각 시에도 쉽게 재건할 수 있다. 종종 장인은 담뱃잎 가공만 하고 포장이나 띠 두르기는 다른 조직에 넘기기도 하며, 또 다른 조직이 마무리 작업을 한다. 판매는 대체로 생산과는 분리된 조직이 담당한다. 여기서 길거리 판매책(jinetero)이 등장한다. 이들은 고객을 찾아내 판매처로 안내하

21)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불법 복권을 뜻하는 말이다.

는 역할을 담당하며, 한 건 당 5태환폐소에서 10태환폐소의 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처는 보통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건물에 있으며, 이 중 두세 가족이 판매에 관계한다. 한 집은 상품 전부나 일부를 숨겨놓고, 다른 집은 판매를 하는데, 현장 급습에 대비하여 고객에게는 견본만 보여준다.

불법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딜레마에 봉착한다. 규칙적인 거래와 내부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내부인의 동기나 조직 구조는 신뢰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순전히 금전적인 관계로 형성된 조직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다지기란 어렵다. 또 조직의 규율 위반을 처벌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 위반자를 내쫓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반자에게 이것이 마지막 생계수단이므로, 이런 조치는 앙심과 복수를 낳으며, 관련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규율을 확립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돈과 폭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변의 위협이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확실한 신용을 쌓아야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거래 과정에서 이러한 신용을 쌓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거래에서 안전은 이해관계를 공유할 때만 확보된다. 그 이유는 ②상호관계에서 상대방의 가장 큰 관심사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이다. 합법적인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인 것이다. ③거래 상대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배신이나 밀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④공모관계가 어느 정도는 보호막이 된다. ⑤폭력, 특히 그럴듯한 협박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상에서 열거한 상황은, 이 유형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자에게는 일련의 태도, 규범, 처신이 있으며, 이는 사고방식 유형과 특정한 문화적 패턴을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다루고 해석할 수 있다.

[강정원 옮김]